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89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73.7×92.1 cm

이 작품은 반 고흐가 삶의 마지막 1년에 정신병과 싸우며 그린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고갱과의 견이 맞지 않아 다룬 뒤 화를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그 후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상태가 안 좋아지자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기억과 상상을 바탕으로 병실 창에 내다보이는 밤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밤 하늘에 펼쳐진 반 고흐의 고독한 내면을 잘 나타낸 그림이기도 합니다.

화면 왼쪽에는 반 고흐가 좋아했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칙칙 같은 하늘은 풍부하고 강렬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을 머금고 노란색의 달과 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출처: 인상파 아틀리에, 서양미술 산책]

반 고흐 이야기

| 원어명: Van Gogh, Vincent
| 생몰년: 1853~1890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이며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살아서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했으며, 정신 질환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다 죽은 후에 재평가된 '천재 예술가'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을 그렸고, 후기에는 꿈틀거리는 선으로 생동감 있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자화상」,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를의 침실」 등이 있습니다.

[출처: 미술사를 움직인 100인]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쇠라]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84~1886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207×308 cm

이 그림은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의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물가 주변의 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부부, 양산을 쓰고 걷고 있는 엄마와 아이, 향기로운 풀 냄새를 맡고 있는 강아지, 공원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원숭이 등이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림을 더욱 가까이서 관찰해 보세요. 수많은 점들이 보입니다. 쇠라가 수많은 점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아름다운 빛을 그림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쇠라는 3미터나 되는 이 작품을 작은 점으로 완성하기 위해 2년 동안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쇠라가 점묘법을 활용해 그린 그림들은 미술의 고정 관념을 깨 작품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새로운 그림을 추구하던 화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쇠라의 점묘법은 이후 많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출처: EBS 어린이 지식]

쇠라 이야기

| 원어명: Seurat, Georges-Pierre
| 생몰년: 1859~1891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신인상주의의 창시자입니다. 점묘화법으로 그린 그의 가장 유명한 대작인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신인상파의 시작으로 현대 예술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작으로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서커스」,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 「포즈를 취한 여인들」, 「화장하는 여인」 등이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두산백과]



초충도 [신사임당]



작품 이야기

제작년도: 16세기 | 작품 재료: 종이에 채색 | 작품 크기: 각 34×29 cm

초충도는 풀 초(草), 벌레 충(蟲), 그림 도(圖)로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 그림 중 꽃, 동물, 새 등을 주제로 그린 그림은 부귀, 장수, 다산 등의 소망을 담은 것이 많습니다. 초충도에는 여덟 개의 연속된 화면에 나비·벌·매미·방아깨비·메뚜기·잠자리·하늘소 등의 곤충과 패랭이꽃·만드라미·나팔꽃 등의 식물이 어우러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도 다산, 성공, 장수 등 신사임당의 다양한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안정된 구도를 자랑하는데, 그림의 중앙을 중심으로 각종 풀벌레가 상하좌우에 배치된 것이 특징입니다. 신사임당 특유의 고운 채색과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붓질 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EBS 어린이 지식e / 다음백과]

신사임당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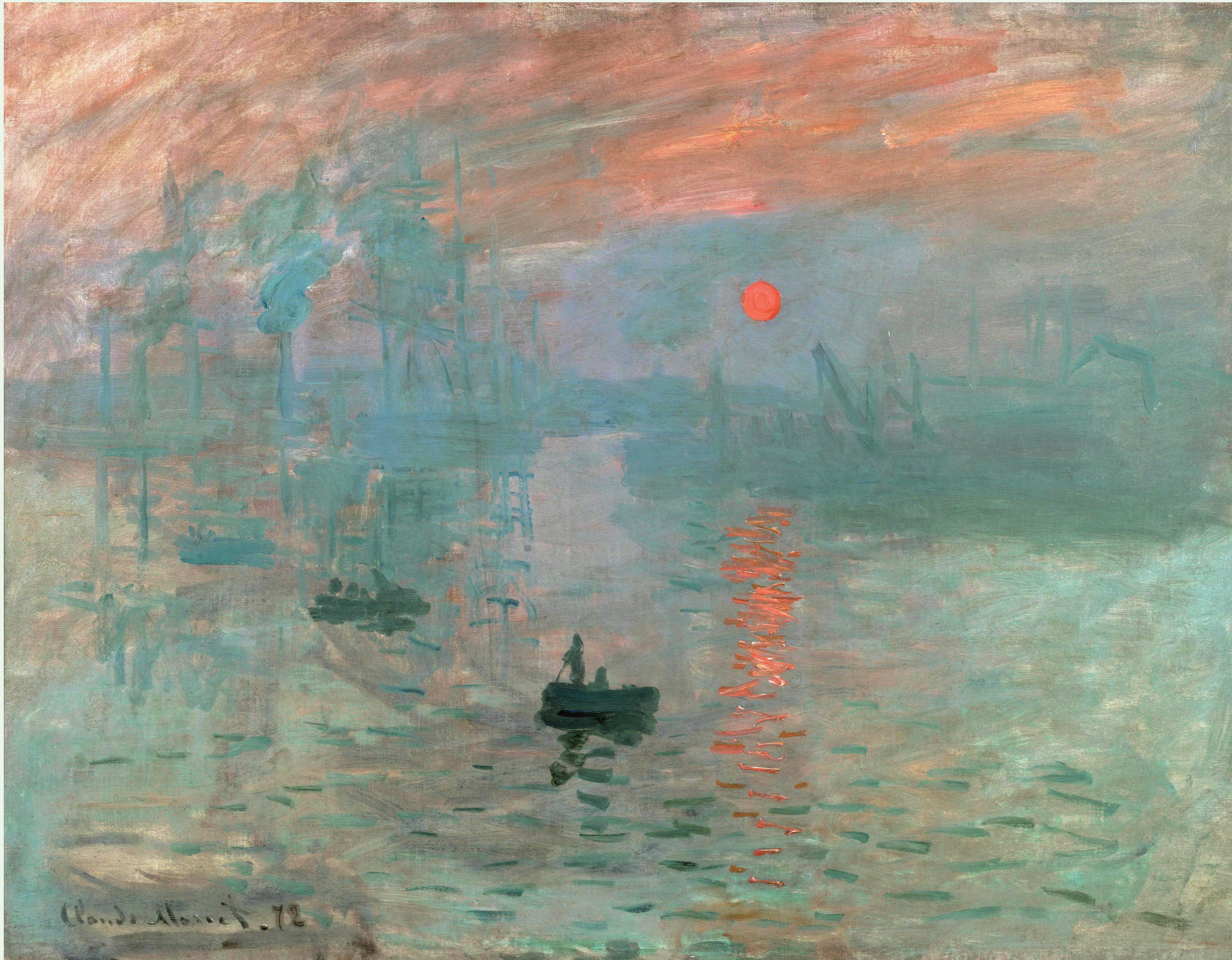
| 호: 사임당(師任堂)

| 생몰년: 1504~1551

신사임당은 조선 시대 화가이자 예술가이며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신사임당은 7세 때부터 스승 없이 혼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풀벌레와 포도를 그리는데 남다른 재주를 보였습니다. 풀벌레·포도·화조·어죽·매화·난초 등을 많이 그렸는데,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섬세한 표현력을 뽐냈습니다. 그림을 본 닭이 와서 살아 있는 곤충인 줄 알고 쪼아 종이가 뚫어질 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출처: EBS 어린이 지식e]



인상, 해돋이 [모네]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72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48×63 cm

모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을 화폭에 담아 내고 싶었습니다. 사진처럼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 붓을 빨리 사용하여 끊듯이 붓질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물감을 팔레트에 섞어 사용하기보다는 화면에 튜브 물감을 대고 직접 짜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어둠 속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풍경을 담은 것으로, 검은색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네의 작품을 보고 붓으로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네를 놀리기 위해 전시회의 제목인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을 따 '인상주의자'라고 불렀지만, 모네는 '인상주의자'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출처: 순간의 빛을 영원에 담은 모네]

모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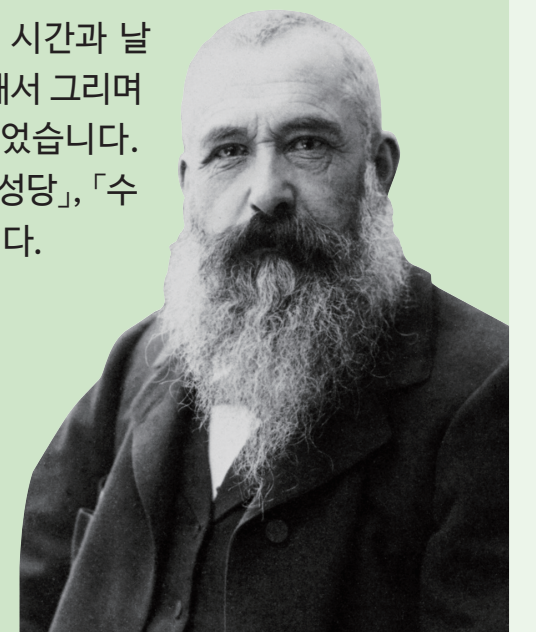
| 원어명: Monet, Claude
| 생몰년: 1840~1926

모네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입니다. 인상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 해돋이」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모네는 순간순간 달라지는 빛과 그림자에 따라 변화하는 색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인상주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를 시간과 날 짜를 달리하여 반복해서 그리며 무수한 연작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 「루앙 대성당」, 「수련」 연작 등이 있습니다.

[출처: 두산백과]



주전자와 과일 [세잔]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88~90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48.6×60 cm

이 작품은 테이블 보 위에 흩어져 있는 사과, 왼쪽에 놓여 있는 회색의 물주전자, 꾸겨져 있는 하얀 테이블보 등을 그린 정물화입니다.

왼쪽에 있는 회색의 물주전자를 잘 관찰해 보세요. 회색의 주전자이지만 분홍, 연보라, 하양, 파랑, 빨강 등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하얀 테이블보도 주황, 초록, 분홍, 노랑 등 역시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번엔 여기저기 놓여 있는 사과를 관찰해 볼까요? 세잔은 평면의 캔버스에 입체적인 사과들을 그리기 위해서 앞과 옆, 위에서 본 사과들의 모양을 모두 그렸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본 사과를 그렸지만 그림 속 정물들의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출처: 정윤아의 '컬렉터의 마음을 훔친 세기의 작품들', 미술관 놀이터]

세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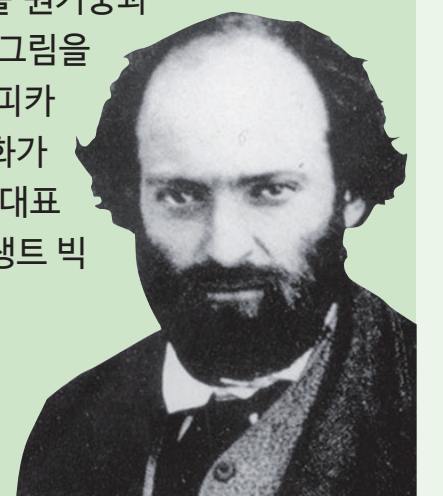
| 원어명: Cézanne, Paul
| 생몰년: 1839~1906

근대 회화의 아버지인 세잔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사과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였던 에밀 졸라가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세잔이 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졸라는 고마움의 뜻으로 사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잔에게 사과는 졸라와 나눈 우정이 담긴 특별한 물건이자 의미있는 소재였던 것입니다.

세잔은 정물화를 그려 그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고,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기둥과 구, 원뿔로 해석한 독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특징은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입체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작으로 「사과와 오렌지」, 「생트 빅투아르 산」 등이 있습니다.

[출처: EBS 어린이 지식]



타히티의 여인들 [고갱]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91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69×91.5 cm

「타히티의 여인들」은 바닷가에 나른하게 앉아 있는 여인과 식물을 꼬아 실을 만들고 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왼편에는 흰색의 꽃무늬가 장식된 '파레오'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귀에도 옷의 무늬와 똑같은 꽃이 꽃혀 있어 여인의 아름다운 구릿빛 피부를 돋보이게 합니다. 옆의 여인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앞으로 무언가를 짜고 있는데 표정에서 우울함이 감돕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표정과는 상관없이 황금빛 모래사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의 뒤편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며 열대 지방을 연상하게 하는 강렬한 색채로 현지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고갱은 1891년 그토록 동경하던 원시적인 삶을 찾아 떠나 남태평양 타히티섬에 정착하며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타히티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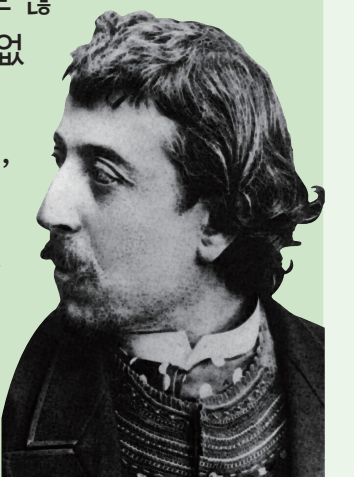
[출처: 두산백과]

고갱 이야기

| 원어명: Gauguin, Eugène Henri Paul
| 생몰년: 1848~1903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후기인상파 화가입니다. 문명 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에 정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주로 꾸밈없는 섬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대표작으로 「황색의 그리스도」, 「이아 오라나 마리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이 있습니다. [출처: 두산백과]



만종 [밀레]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857~1859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55.5×66 cm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만종」은 해 질 녘 절이나 교회에서 치는 종을 말합니다. 작품을 보면, 하루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노을이 지기 시작한 논과 밭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판에 굳건하게 서 있는 부부의 모습은 마치 땅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먼 지평선에서 물들어가는 노을 빛을 받고 있는 부부의 경건한 자세는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신화 속의 아름다운 여신이나 전쟁 영웅을 주로 그리던 당시, 농부를 주제로 그린 밀레의 그림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종」과 같이 현실의 주제를 그대로 그린 작품을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출처: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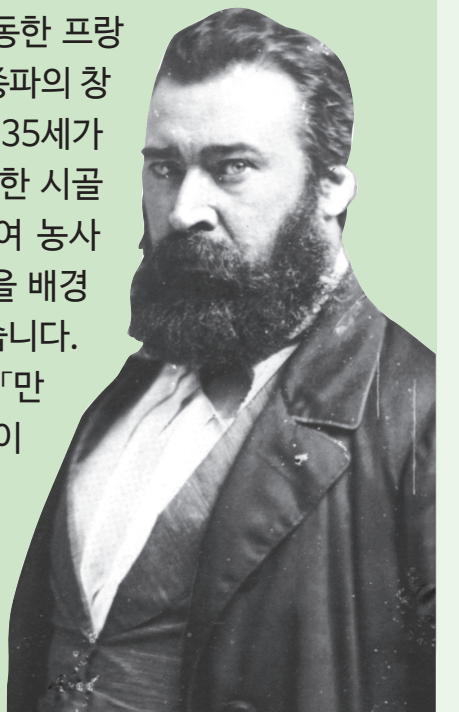
밀레 이야기

| 원어명: Millet, Jean-François
| 생몰년: 1814~1875

프랑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농부들의 삶을 관찰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농부의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며,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밀레는 프랑스의 농부를 가장 프랑스적으로 묘사한 화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중엽에 활동한 프랑스 화가의 집단인 바르비종파의 창립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35세가 되는 해 파리를 떠나 한적한 시골인 바르비종으로 이사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부터 농촌을 배경으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대표작으로 「이삭줍기」, 「만종」, 「씨 뿌리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눈 속의 사냥꾼 [브뤼헬(부)]



작품 이야기

| 제작년도: 1565년 작
|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 작품 크기: 117×162 cm

이 작품은 달력을 만들기 위해 그린 여섯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달력은 계절에 맞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일하는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눈 속의 사냥꾼」은 1월이나 2월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사냥꾼들은 지친 개의 무리와 함께 아랫마을로 돌아가고 있으며, 한 남자의 어깨에는 여우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왼쪽의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고, 아랫마을의 얼어 붙은 강에는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화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세부적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의 조화입니다. 왼편에는 사냥꾼, 오른편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브뤼헬(부) 이야기

| 원어명: Brueghel, Pieter (the Elder)
| 생몰년: 1525~1569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16세기 후반 네덜란드 최고의 풍속화가입니다.

그의 초기 작품은 주로 민간 설화, 전설, 속담 등을 주제로 그렸으나, 후에는 사회 불안과 혼란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종교적 제재를 빌어서 표현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 「바벨탑」, 「네덜란드의 속담」, 「농민의 결혼식」, 「아이들의 놀이」 등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반 고흐]



작품 이야기

제작년도: 1888년 작 | 작품 재료: 캔버스에 유채 | 작품 크기: 91×72 cm

반 고흐는 1888년 프랑스 파리에 살다가 남부 아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그곳에서 동료 화가인 고갱과 함께 작업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그 집을 노란 페인트로 칠한 후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그때 그려진 「해바라기」 연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품으로 반 고흐는 ‘태양의 화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는 색채, 특히 노란색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작품입니다. 반 고흐에게 노랑은 희망을 의미하며, 당시 그가 느꼈던 기쁨과 설렘을 반영하는 색입니다. 더불어 대담하고 힘이 넘치는 붓질은 그의 내면의 뜨거운 열정을 나타냅니다. [출처: 두산백과]

반 고흐 이야기

| 원어명: Van Gogh, Vincent

| 생몰년도: 1853~1890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살아서는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렸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했으며, 정신 질환으로 고통스런 삶을 살다 죽은 후에 재평가된 ‘천재 예술가’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을 그렸고, 후기에는 꿈틀거리는 선으로 생동감 있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자화상」,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를의 침실」 등이 있습니다.

[출처: 미술사를 움직인 100인]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이야기

제작년도: 1503~1506년 작 | 작품 재료: 목판에 유채 | 작품 크기: 77×53 cm

「모나리자」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리자 부인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자 부인의 눈썹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넓은 이마가 미인의 기준으로 여겨져, 여성들 사이에 눈썹을 뽑아버리는 일이 유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설, 미완성이라는 설, 원래 눈썹이 그려졌으나 지워졌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안개와 같이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 색깔 사이의 윤곽을 모호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스푸마토 기법은 리자 부인의 미소를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출처: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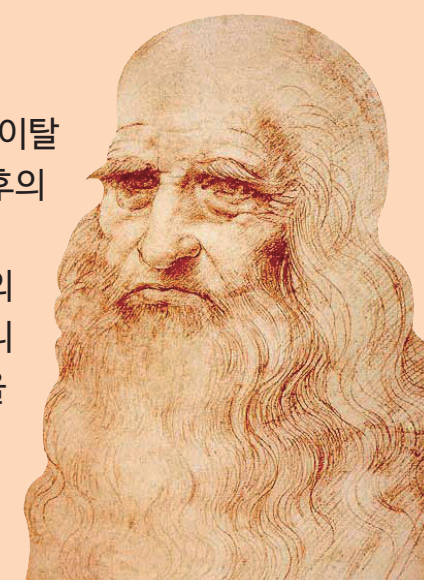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

| 원어명: Leonardo da Vinci

| 생몰년: 1452~1519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입니다. 주요 작품으로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나 15세 때부터 베로키오의 제자가 되어 회화, 조각 등 여러 분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회화, 조각, 건축, 해부학, 철학 등에서 방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절규 [몽크]



작품 이야기

제작년도: 1893년 작 | 작품 재료: 판지에 유채, 템페라, 파스텔 | 작품 크기: 91×73.5 cm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 질 녘이었고 나는 피곤하고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빨강계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멈춰서 난간에 기댔어요. 그리고 붉은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어둡고 푸른 도시를 보았어요. 저는 자연을 뚫고 나오는 절규를 느꼈어요. 그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절규」는 소리 지르면서 절규하는 몽크 자신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를 그린 것입니다. 몽크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하며, 인물을 S자 모양으로 비틀어 입을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뜬 채 괴로워하는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두산백과]

몽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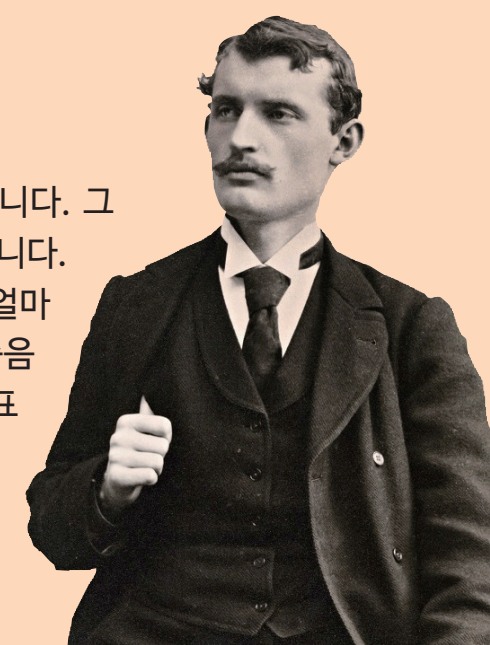
| 원어명: Munch, Edvard

| 생몰년: 1863~1944

몽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그의 초상이 노르웨이 지폐 1,000 크로네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몽크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으로 누나까지 사망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의 작품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표현주의적인 화풍의 화가로 알려져 있으며 작품으로 「절규」, 「병든 소녀」 등이 있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서당 [김홍도]



작품 이야기

제작년도: 18세기 후반 | 작품 재료: 종이에 옅은 채색 | 작품 크기: 26.9×22.2 cm

이 그림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조선 시대 서당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림 속 한 아이는 훈장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혼나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왼쪽 줄에 있는 아이는 입을 가린 채 무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초리로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훈장님이 물어보는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 않나요? 또, 왼쪽 줄의 앞에 있는 아이는 책을 썩 밀어 주면서 “이걸 보고 말해 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EBS 어린이 지식]

김홍도 이야기

| 호: 단원(檀園)

| 생몰년: 1745~1806?

조선 시대의 화가로 영·정조의 문예부흥기부터 순조 초기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강세황의 지도를 받아 그림을 그렸고, 그의 추천으로 도화서 화원이 되어 정조의 신임 속에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수, 인물, 도석, 불화, 화조, 풍속 등 모든 장르에 뛰어났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출처: 두산백과]

